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2017년 2월 27일(월) 오전 10:3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붙임 리스트 참고(관계부처 합동)

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
-「2017년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대응방안」발표 -

① **수출 현장애로 집중해소 및 상반기 중 수출마케팅 예산의 60% 이상 투입**
('17년 수출마케팅 예산 총 3,729억 원, 3만 2천개 업체에 지원)

② **아세안·인도·걸프협력회의(GCC)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수출시장 다변화**

③ **중소·중견기업 무역보험 4조원 확대**('16년 68조 원 → '17년 72조 원)

□ 정부는 '17. 2. 27.(월) 열린 **황교안 권한대행 주재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**를 통해 「**2017년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대응방안**」을 발표했다.

<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요 (※상세개요 붙임참조)>

○ **일시/장소** : 2017.2.27(월) 10:00~11:30 / 정부서울청사
○ **참석자** : 관계부처 장·차관, 주요경제단체장, 관련업체 대표 등 130여명
○ **주요논의내용** : ① (무역) 2017년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대응방안
② (투자) 투자활성화 대책

○ 이번 대책은 세계경기·교역 둔화 추세 속에서도 **최근 우리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**하는 등 수출회복의 전기가 마련된 가운데,

- 이런 수출회복세를 견고하게 유지·확대함으로써 올해 **수출 증가율을 반드시 플러스(+)로 달성**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.

* '17년 연간수출은 2.9% 증가한 5,100억 달러 전망
* 최근 수출증가요인 : ① 반도체 등 주력품목 호조, ② 수출단가 상승, ③ 수출구조 혁신을 통한 수출체질 개선효과의 가시화 등

□ 이번 대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추진전략 및 방향

□ 정부는 **4가지 전략**을 통해 수출 플러스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.

① **수출현장의 숨은 애로**를 집중 발굴·해소하고, **상반기 중 수출지원 사업을 집중 시행**하여 수출플러스 전환을 기필코 달성

② 아세안·인도 등 급성장하는 지역으로 **수출시장을 다변화**하여 거세지는 **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**

③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참여를 확대하고, 기존 수출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**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을 획기적으로 제고**

④ 소비재·서비스 등 신규품목,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등 **수출구조 혁신도 가속화**

2. 세부 추진방안

가. 수출 현장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사업 집중지원

□ **(수출애로)** 단기적으로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출현장의 숨은 애로(隘路)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, 정부는 **'17.1~2월간 수출현장애로를 집중 조사**해, **총 135건의 과제**(단순과제·문의 제외)**를 발굴**했다.

* 현장방문(35회), 간담회(170회), 1380 수출콜센터, 서면조사 등 실시

○ 이 중 **단기해결이 가능한 과제**(92건)는 이번 **무투회의를 통해 일괄 해소**하고, **중단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**(43건)는 이후 관계부처와 **추가 협의**를 거쳐 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.

○ 이번 무투회의를 통해 해소된 **주요 수출현장 애로**는 다음과 같다.

(수출마케팅) 해외전시회 참가 후 지사화사업을 신청했지만, 선정기준이 높아 현지 진출에 애로(계측기기업체 J사)

해외전시회 등 참가기업이 동일지역 지사화사업 신청시 우대 지원토록 관련규정 개정(코트라, 4월)

(무역금융)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 회피 금융상품 비용 과다(장비제조 업체 I사)

중소 중견기업 환변동보험 할인기간 연장(무보, ~12월)

(유통 물류) 중국, 일본 등 근거리 수출시에도 상품운송비 등이 큰 부담(전자상거래 업체 E사)

인천-청도간 운영중인 해상배송을 중국내 타지역 및 일본으로 확대추진(관세청, '17.상반기)

(관세 통관) 역직구로 수출한 제품이 반품되는 경우 수입관세 면제절차 복잡(전자상거래 업체 G사)

당초 수출신고 내역을 재수입신고로 자동 연계해 절차 간소화(관세청, '17.상반기)

□ **(집중지원)** 최근의 수출회복 모멘텀을 활용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이 공격적인 해외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도록 **올해 상반기 중 전체 수출마케팅 예산의 60%이상을 투입**할 계획이다.

* 수출마케팅 지원규모 : ('16) 2,878억원/25,310개사 → ('17) 3,729억원/32,305개사

○ 올해 **수출상담회 개최, 무역사절단 파견**사업 중 67%를 상반기중에 앞당겨 시행한다.

* 상담회 사절단 조기시행(상반기/연간) : ('16) 134회/297회 → ('17) 210회/315회

○ **'수출 바우처'**를 5월부터 신규지급하고, 수출계약 효과가 큰 500여개 **해외전시회**에 1만2천개 국내업체 참가를 지원, 또한 **국내무역전시회**(100여회)에 해외 구매자(바이어) 7만여 명을 유치해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.

* 수출 바우처('17년, 신규) : 총 12,300개 중소 중견기업 지원(1,786억 원)

○ 대만(6월) 홍콩(7월) 등 중화권과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공연과 제품홍보를 융합한 **'한국우수상품전'**을 개최한다.(총 7회)

나. 수출시장 다변화 및 대외 통상환경 대응

□ **(수출시장 다변화)** 미국·중국 등 일부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,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**수출시장 다변화**를 적극 추진한다.

○ **(신흥시장)** 견조한 성장세, 중산층 증가, 시장규모 확대 등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아세안 인도 걸프협력회의(GCC)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**맞춤형 시장 진출전략**을 추진한다.

- 아세안: 연 5% 경제성장, 중산층의 급증('09년 0.8억명→'30년 4.9억명)으로 단기간내 경제규모 확대

☞ 포스트차이나(Post China)에 대비해 현지 제조기지 육성, **유망 소비재** 수출 확대, 우리기업의 **프로젝트 수주** 확대 지원

* 하노이 엑스포 참가(4월), 현지 온라인시장 진출(한국상품관 입점) 등
* 한-필리핀 에너지장관회담, 한-싱가포르 통상장관회담(2월) 계기 필리핀 수알 석탄화력발전사업(18억불), 싱가폴-말레이시아 고속철 건설사업(150억불) 등 수주지원

- 인도: 12.5억 명의 거대소비시장(중산층 1.9억명), 구매력 기준 국내총생산(GDP)는 미국·중국에 이은 세계 3위

☞ 인도의 제조업 육성정책(Make in India)을 활용한 **부품·기자재** 진출 및 한국산 수요가 높은 **가전** 등 수출확대 집중지원

* 무역사절단 파견(3월), 콜카타 무역관 개소(5월), 휴대폰 부품 매칭상담회(뉴델리, '17.下)

- 걸프협력회의(GCC): 높은 소득 수준(1인당 GDP 3.3만 달러), 유가회복시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

☞ 중동국가의 포스트 오일(Post-Oil) **산업화정책**과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

* '사우디 비전 2030' 자문단 협력회의('17.上), 한 사우디 산업장관회담(4월), 중동 무역사절단 파견(4월)

- 이와 함께 올해 **수출상담회 개최, 무역사절단 파견**사업 중 67%를 상반기중에 앞당겨 시행하는 과정에서 **신규 추진행사**는 아세안·인도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상반기에 집중 배치

- 성장세가 높고 중산층이 많은 나라의 경우 소비재 수요가 높으므로 소비재시장에 적극 진출

○ **(선진시장)** 유럽연합(EU), 일본 등 구매력이 풍부한 선진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**'선택과 집중'형 수출전략**을 추진

- 유럽연합(EU):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자유무역협정(FTA) **수혜품목**(가전·소형차 등)과 **고급 소비재**(기능성 화장품·친환경 제품 등) 수출 확대

- 일본 : 실버제품, 화장품 등 수출확대 및 자동차부품·건설기자재·사물인터넷(IoT)·핀테크 등 유망분야의 수출 및 협력 확대

□ **(수입규제 등 보호무역 대응)** 우리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수입규제 등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.

○ **재외공관·무역관 공동으로 '현지대응반'** 활동을 강화하여 수입규제 관련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신속한 해결을 지원한다.

○ **철강·석유화학** 등 수입규제 빈발업종을 대상으로 한 대응반을 상시운영, '**수입규제 대응센터**(무역협회)'를 확대·개편하여 개별업체의 수입규제 대응을 한 번에 지원한다.

다.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저변 확대

□ 2.6%에 불과한 중소·중견기업의 **수출참여를 확대**하고, 기존 중소·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**수출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**해 나가기로 했다.

* 중소·중견기업 현황 : 총 기업 수 354만 개, 수출기업 9.4만 개
* 국가별 중소기업 수출참여율 : 독일 9.7%, 미국 5.2%, 한국 2.6%

○ **(내수기업)** 수출전문위원(250명)의 멘토링, 코트라 등 8개기관의 18개 수출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**작년대비 20% 증가**한 **6천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**하고, **지속적으로 지원 규모**를 늘려 **향후 5년 내 총 3만5천개 기업**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.

○ **(수출유망·중견기업)** 수출잠재력이 큰 기업군(1백만~1천만 달러)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 등 **수출 지원사업 지원기준 개선**('17.상반기)

* 수출지원사업 이용비중 : (1백만 달러 이하) 74%, (1백만~1천만 달러) 18%, (1천만 달러 이상) 8%
* 1백만~1천만 달러 수출기업은 중소·중견기업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20.4%로 수출실적이 매우 양호하고 지원수요가 가장 많음

- 수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**연구개발(R&D) 과제선정시 우대가점** 적용 등 우선지원 제도 마련('17. 상반기), **해외 국제기업**에 대한 **납품기회 확대**를 위해 '글로벌 파트너링(GP)' 사업확대 * GP 상담회: ('16) 21회 → ('17) 40회

□ **(금융지원)** 수출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올해 **무역금융**은 작년대비 8조 원 늘어난 232조 원을 투입, 특히 **중소·중견기업을 위한 지원은 4조 원을 확대한다.**

* 중소·중견기업 지원규모 : ('16) 68조 원 → ('17) 72조 원 (무보 46, 수은 26)

○ **창업 5년이내** 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지원시 **대표자 연대보증을 면제**하고, **보증료의 50%를 할인해 준다.**(3월)

○ 아르헨티나 등 경제개발협력기구(OECD) 국가등급이 상향조정된 **7개 신흥국** 대상으로 우량 수입업체에 대해 **무역보험 한도를 2배 확대**(3월)

* 아르헨티나, 이란, 불가리아, 세르비아, 온두라스, 토고, 세이셸

○ **중소기업 정책금융**(총 103조 원) 지원시에도 수출기업을 우대

* 수출정책자금(2,250억 원) 대출기간 연장(6개월→1년), 금리인하(0.3%p) 등 우대

라. 수출품목의 다변화 및 고도화

□ **(소비재) 5대 소비재**(화장품, 의약품, 농수산식품, 생활용품, 패션의류) **수출 270억 달러** 달성을 목표('16. 235억불)로, 신규 유망시장을 중심으로 **문화융합 마케팅**과 **품목별 특화 마케팅**을 집중 추진한다.

○ 중소기업의 **한국드라마 간접광고**(PPL) **활용**을 위해 드라마 제작사-중소기업 제품 매칭페어를 연내 4회 개최한다.

○ **화장품**은 세포라 부츠 등 글로벌 유통망에 우리 우수기업 10개사 제품의 입점을 추진, **의약품**은 개도국 백신 수출을 위한 사전적격성평가(WHO PQ) 인증절차를 간소화*한다.

* 식약처 실사보고서로 세계보건기구(WHO) 현장실사를 대체(식약처-WHO 업무협약, '16.12)

○ **농식품**은 브라질(5월), 인도(6월) 등으로 **농식품 청년 시장개척단**(AFLO*) **파견**, **수산물**은 김·어묵 케이피쉬(**K-Fish**)** **상품지정**(3월)으로 **유망 가공수산물 브랜드화한다.**

* Agrifood Frontier Leader Organization: 농식품 수출 실무교육(4주) 후 해외 3개월 파견
** 수산물 국가통합브랜드로 전용사이트(영어·일어·중국어·아랍어)를 통해 집중 홍보

- 중국(영유아식품), 미국(쌀가공제품, 삼계탕), 일본(간편·편의 및 기능성식품) 등 주력시장도 핵심품목 위주로 집중 지원

□ **(서비스)** 의료 콘텐츠 지식재산권 등 분야의 **해외파트너 협력사업을 추진**하고, 그간의 **제조업 중심**으로 운영되어 온 **수출지원 사업과 조직을 개편,** 서비스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① (의료) 의료분야 왕홍(중국의 파워블로거)을 초청, 의료관광 체험 홍보(6월)
② (만화 웹툰) 해외파트너기업과 수출용 만화 공동제작 지원(4월)
③ (애니메이션) 아시아-EU 카툰커넥션(4월)을 통해 유럽 중국 등 퍼블리셔와 집중 수출상담
④ (지재권) 글로벌 기술사업화센터별로 국내 유망기술 보유기관과 현지 수요업체 매칭

○ 수출지원사업 평가시 **서비스 수출실적**을 **우대지원**하며, **산업부 내 전담조직**(「서비스 해외진출팀」) **신설**을 통해 지원체계를 확충한다.

□ **(주력품목・에너지신산업)** 주력산업의 수출을 회복하고 낸드 플래시, 유기발광다이오드(OLED) 등 첨단 부품과 차세대 유망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**수출 투자애로를 적극 타개**하는 한편, **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신속한 고도화**를 추진하기 위한 투자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한전・석유공사 등 공기업 해외 프로젝트를 활용, 발전용・채굴용 고부가가치 철강재 공급을 추진하고, 고강도・내열성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수출을 확대한다.

* 국내에서 개발한 새로운 유정용 강관등에 대해 석유공사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광구에 테스트 베드 제공

○ 낸드플래시 유기발광다이오드(OLED) 등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송전, 용 폐수 등 **투자애로를 해소**하고 **소재 장비의 할당관세**(5~8% → 0%)를 지원하기로 했다.

○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(R&D) 투자('17년 3.7조원)도 적극 추진한다.

○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 보급기반마련과 트랙 레코드 축적을 가속화 하고, 이를 토대로 신재생・에너지저장장치(ESS)・전기차 등 **에너지신산업의 수출을 본격화 한다.**

- **(신재생)** 입지·투자 등 **불합리한 규제개선**으로 **세계 최고 보급기반 조성**

* ①지자체의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 규제 정비(3월), ②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(50%)에 농촌태양광 포함('17.하), ③신재생에너지 투자를 'SOC 금융'에 포함하여 보험업계 투자 확대('17.상), ④태양광 상주 안전관리자 고용 기준을 1→3MW로 상향, 전기차충전설비는 대행관리 또는 안전관리자 1인의 다수사업장 겸임 허용 추진('17.하)

- **(에너지저장장치(ESS)·전기차 등)**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전략 추진을 통해 수출 본격화

  * ① (ESS) 미국 유럽·일본 등 해외 ESS 실증사업 참여로 트랙레코드 확보
    ② (전기차) 신모델 출시, 주행거리 연장 등으로 주력시장(미국·유럽) 수출 확대, 중소기업은 초소형 전기차 개발로 동남아 등 틈새시장 개척
    ③ (스마트미터) '20년까지 총 2천2백만대 국내 보급을 추진하고, 중동 등 신흥시장 진출 추진

마. 전자상거래 수출촉진 및 글로벌 유통망 진출확대

□ **(전자상거래 수출확대)** 새로운 무역채널로 부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확대를 위해 **'상품등록-판매-배송-통관' 등 전주기**에 걸친 걸림돌을 제거하고, 온라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**정책자금을 신설**한다.

○ 이를 위해 업계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표준화된 내·외국어 상품 데이터베이스(DB) 를 구축(3~12월)하고,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항목을 축소(33개→26개)

○ 온라인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(중진공, 1,750억 원)내 특화자금을 신설('17. 200억 원)

□ **(글로벌 유통망 활용)** 온라인 수출경험이 부족한 **중소기업의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온라인 몰 입점 운영**을 지원('17. 2,100개사)하고, **'한국상품 온라인 판촉전'**으로 화장품 등 주요 소비재 수출을 적극 추진한다.

  * 한국상품 온라인 판촉전(코트라) : ('16) 20회 → ('17) 30회

○ 이와 함께,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**대형 유통기업**과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(**GMD:** Global Market Developer,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)를 중소기업의 **수출플랫폼으로 활용**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.

  * 대형유통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(3월), 중소기업 매칭상담회 확대('17, 20회), 중기제품 수출대행에 대한 무역보험 부보율 우대(95%→100%)

  ** 신흥시장, 전자상거래, 해외 B2G 분야별 전문 GMD 추가지정('17, 70개사), 중소기업 매칭 지원확대('17, 550개사)

3.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

□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아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.

◇ **중소·중견기업 수출저변 확대**



◇ **새로운 수출방식의 활성화**



◇ **신규 유망품목 수출확대**



◇ **주력품목 수출회복**



□ **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**은 "이번 대책을 통해 **연간수출 플러스 전환을 반드시 달성**해, 수출이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."라고 말하고,

○ 특히, "**상반기 중에 해외마케팅 집중지원**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, **수출현장 애로에 대해서는** '수출 카라반' 등을 통해 관계부처 기관과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해소하겠다."라고 강조했다.

※ **[붙임1] 무투회의 개요**
[붙임2]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

OPEN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송영진 서기관(☎ 044-203-402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1] 무투회의 개요

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요

일 시 : ’17.2.27(월) 10:00~11:30 (90분)

장 소 : 정부서울청사 별관(외교부 청사) 3층 국제회의실

참석자 : 정부, 수출유관기관, 관련기업 등 **약 130명**

○ **정부** : 권한대행, 경제부총리, 산업부 장관, 미래・농식품・복지・환경・국토・해수부 장관, 금융위원장, 국무조정실장 등

○ **경제계** : 기업대표, 경제단체장 등 30여명

○ **관련기관** : 무역투자진흥공사, 무역보험공사, 산업연구원 등

회의 내용

○ **1세션(기재부 주관) : 투자활성화 대책**

- 보고부처 : 기재부, 국토부, 복지부

○ **2세션(산업부 주관) : 2017년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대응방안**

- 보고부처 : 산업부

[붙임2]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

◇ **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**이 있는 경우, 아래 **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 당 부 서			담 당 과 장	담 당 자
총괄	산업부	무역정책과	노건기(044-203-4020)	송영진 서기관(4021) 박홍일 사무관(4024)
수출시장 다변화 · 통상환경 대응	산업부	통상협력총괄과 (시장다변화·인프라)	김기준(044-203-5680)	이정은 사무관(5681) 김현진 사무관(5682)
		아주통상과 중동아프리카과 (신흥시장)	김대자(044-203-5710) 최진혁(044-203-5720)	장미연 사무관(5713) 박신렬 사무관(5724)
		구주통상과 동북아통상과 (선진시장)	제경희(044-203-5660) 조수정(044-203-5690)	주현수 사무관(5664) 조아라 사무관(5694)
		무역진흥과 (조달)	박덕열(044-203-4030)	임정준 주무관(4037)
		통상정책총괄과 (무역장벽 대응)	이경식(044-203-5620)	김준겸 사무관(5622)
중소중견 수출저변 확대	산업부	무역진흥과 (마케팅)	박덕열(044-203-4030)	윤삼희 사무관(4031)
		산업기술개발과 (R&D지원)	김홍주(044-203-4520)	허희정 사무관(4505)
		수출입과 (무역금융)	이민우(044-203-4040)	성하진 주무관(4045)
	중기청	기업금융과 (정책금융)	황영호(042-481-4545)	추경훈 사무관(4382)
수출품목 다변화 · 고도화	산업부	무역협력과 (소비재・서비스)	이원희(044-203-4840)	김남혁 사무관(4841) 박혜영 사무관(4844)
	농식품부	수출진흥과 (농식품)	이정삼(044-201-2171)	이강석 사무관(2172)
	해수부	수출가공진흥과 (수산물)	공두표(044-200-5480)	허남기 사무관(5481)

	복지부	해외의료총괄과 (의료)	손일룡(044-202-2980)	최경순 사무관(2981)
	문화부	대중문화산업과 (만화·웹툰)	최현승(044-203-2461)	정인영 사무관(2463)
	문화부	영상콘텐츠산업과 (애니메이션)	이영아(044-203-2431)	조은영 사무관(2436)
	산업부 특허청	산업기술시장과 산업재산활용과 (지재권)	이재근(044-203-4530) 김정균(042-481-5258)	정승혜 서기관(4531) 강윤석 서기관(3478)
	산업부	창의산업정책과 (주력품목)	최우석(044-203-4360)	김성준 사무관(4369)
		에너지신산업정책과 (에너지신산업)	유법민(044-203-5360)	이헌두 사무관(5358)
		신재생에너지과 (신재생)	이진광(044-203-5160)	권영희 서기관(5170) 이기헌 사무관(5166)
		에너지신산업진흥과 (ESS)	허정수(044-203-5390)	유재영 사무관(5393)
		자동차항공과 에너지신산업진흥과 (전기차)	이원주(044-203-4320) 허정수(044-203-5390)	김기열 사무관(4322) 김인곤 사무관(5394)
		전력진흥과 (스마트미터)	신용민(044-203-5260)	조영길 사무관(5267)
전자상거래 · 유통	산업부	유통물류과	정종영(044-203-4380)	이준우 주무관(4822)
		무역진흥과 (무역상사)	박덕열(044-203-4030)	임정준 주무관(4037)
	중기청	해외시장과 (GMD)	노용석(042-481-4391)	진수웅 사무관(6895)